

經濟計劃樹立과 OR*

金 在 益**

경제계획수립과 OR의 適用에 있어서 먼저 경제계획 과정을 살펴보면, 지난 15年間 세 번에 걸친 經濟計劃 중 제 2차 5 個年計劃에서부터 計量的인 接近方法, 또는 OR技法등이 많이 活用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제 2차 5 個年計劃에 관해서는 상당한 OR의 活用に 관한 문헌도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Practical Approach to Economic Development Planning이라고 해서 Irma Agelmann교수가 편집한 2次計劃의 경험을 담은 論文集이 있습니다. 그리고 最近에 OR의 현황에 관해서 쓴 책들을 보면 대개 우리나라의 第2次 5 個年計劃에서 있었던 地域計劃 또 석유 화학과 강철 部門에 관한 mixed integer programming을 했던 경험, 이런 것을 취급한 博士 論文도 있고 또 그 경험을 적은 논문들이 여러 곳에서 출판되고 있습니다. 또 4次 5 個年計劃을 할 때, 2次 5 個年計劃에 했던 接近方法과 여러가지 전제를 다시한번 검토했습니다. 2次 5 個年計劃과 4次 5 個年計劃에 있어서 差異點으로 두드러지는 것은 그때는 실물과 화폐면에 대해서 兩面에 모두 OR approach를 하기가 어려웠으나 이번에는 다행히도 그 후에 우리나라의 水準이 상당히 올라갔기 때문에 실물, 화폐, 兩面에 똑같이 같은 approach를 시도했다는 점입니다. 그 첫째로 巨視經濟變數를 가지고 計量經濟 model을 만들어서 15년 정도를 예측하고 그 다음에 첫 5년을 빼서 4次 5 個年計劃의 첫 번째 計量變數에 대한 전제를 만들었습니다. 이 巨視經濟 model에서 나온 變數를 가지고 여러가지 商品의 總量에 대한 需要彈力性을 計算해서 產業聯關分析 model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으로 가령 우리 GNP가 9% 늘면 철강 수요는 몇%가 늘고, 전력 수요는 몇%가 늘다는 式으로 해서 53개 部門에 대한 部門計劃이 나올 수 있는 產業聯關分析 System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巨視經濟 model에서는 11個 部門에 대한 model과 예측이 나오고, 그 다

음에는 53개 부문에 대한 예측을 했습니다. 이때, 53個 部門 중에는 한 부문이 바로 한 產業일 수도 있고, 石油化學 같이 여러 부문에 걸쳐 있을 수도 있고, 또 한 부문에서 여러 Subfactor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53個 部門에 대한 model이 나온 다음에 project에 연결 했습니다. 그런데 實際 經濟 政策에서 쓰는 것은 macro variable에 대한 政策과 이 Project level의 決定입니다. 예를 들면, 제 2제철소를 만들어야 하느냐 안 만들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macro variable로서는 곤란하고 project level의 decision인 것입니다. 그래서 Project와 Subfactor의 수요, 공급, 투자의 變數를 決定하는 것이 실물 면의 일련의 作業이었습니다. 여기서 만약 제 2 제철은 만들 필요가 없다고 결정이 되면 다시 巨視經濟變數를 決定하는 model로 feed-back이 됩니다. 그러면 또 한번의 iteration이 되서 巨視經濟 model, 產業聯關分析, Project의 세 level의 經濟計劃이 순환 되서 여러 代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약 72개의 代案중에서 우리나라의 여러 政策的인 判斷, 政治的인 判斷에 의해서 가능하고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實物 면을 대상으로 計劃을 한 일련의 作業입니다. 반면 화폐 면을 대상으로 한 計劃은, 화폐 면에 있어서의 巨視變數 즉 通貨量, 저축성 예금의 총액, 순 海外 資產의 총액등을 예측하고, 實物면에 있어서의 產業聯關分析이라 할수 있는 資金循環分析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폐면의 巨視變數가 實際로 資金循環을 어떻게 거쳐서 구체적인 金融 資產, 증권 혹은 보험 등의 저축수단, 즉 micro level의 저축 수단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가 하는것을 예측했습니다. 여기서 가령 租稅를 어느 以上은 못 하겠다, 今年에 발행한 2천억의 증권을 5年後에는 얼마 이상은 할 수 없을 것이다, 하는 micro level의 直觀的인 判斷을 하게 되고, 그러면 內資동원을 1981년 까지 어느정도 할 수 있겠다 하는 예측이 나옵니다. 이것이 다시 巨視分析을 하는 變數에 feed-back이 되서 화폐면에 하나

*이 글은 편집자가 녹음테이프로부터 편집한 것임.

**經濟企劃院

의 loop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런 iteration이 반복하게 되서 여러 代案中에서 하나의 代案을 選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計劃過程은 만약 經濟 全團을 하나의 model로 표현할 수 있다면 이렇듯 simulation에만 하지 않고 實際의 objective function을 만들어 constraint minimization의 process를 거쳐 하나의 답을 選擇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實際로 여러 나라에서 經濟 全體를 포괄하는 model을 시도는 합리하지만 아직도 實用段階에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 經濟 全體를 포괄하는 것은 위의 계획과정 정도의 計量的인 接近方法에 限定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問題가 되는 것은 사람에 대한 統計가 확실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雇傭統計, 賃金統計, 職級別 統計, 技術水準別 統計 등이 발전 段階에 있습니다만, 技術水準別로 노동의 공급과 수요가 나오고 임금이 나오면 이 경제전반에 걸친 model이 適用 可能해질 것입니다. 만약 사람에 대한 것이 없이는 경제 전반에 걸친 model은 거의 實用性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實用性을 지니기 위해 지금 段階에서는 input data를 어떻게 더 開發해서 경제 전반에 걸친 model이 실용적인 水準에서 活用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큰 課題입니다.

그러면 이번 4次 5個年計劃에서 어떤 問題意識을 갖고 approach 했느냐 하는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4次 5個年計劃의 目標은 우리나라의 항구적인 안전보장과 國民生活의 質的, 量的 향상에 있습니다. 이를 達成하는 세가지 中間目標, 혹은 세가지 理念이라 할 수 있는 것이 成長, 能率, 平衡입니다. 성장에는 自立的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經濟構造를 달성 한다는 目標이 있고, 능률은 기술 혁신과 경영 능률을 향상 함에 있고, 형평을 達成하기 위해서는 社會 開發을 과거 보다 역점을 두어 추진함에 있습니다. 여기서 OR이라는 면과 가장 關聯이 깊은 것은 能率의 향상입니다.

能率의 向上이 operations research나 systems analysis하는 目標과 一致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能率의 향상을 達成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生活水準의 向上을 생각할 때, 지난 15년간의 잘잘못을 分析해서 잘된 것은 더잘 되게 하고 못된 것은 補完한다는 것이 경제계획의 全體 內容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15年間 達成한 것중에 가장 잘 됐다고 할 수 있는 것은 雇傭增大입니다. 15年 前에는 고용되어 있는 人口가 7백만명이었으나 지금은 1,200만명, 즉 500만명의 고

용增大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500만명 중에 生産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農業部門에서의 새로운 고용은 약 20만명 程度입니다. 즉 그 나머지는 農業 이외의 部門에서 고용 기회를 만든 것입니다. 이에 決定的인 역할을 한 것은 수출이고, 수출과 관련되어 있는 部門에서 全體 고용의 약 1/3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 產業關聯分析에서 나온 決論입니다. 이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경제의 水準을 유지하고, 經濟의 크기에서 오는 制約條件을 극복하는 方法은 우리나라에 있는 資源中에 가장 重要하고 決定的인 資源인 人的資源과 結合할 수 있는 世界資本市場의 資本과 先進國의 經營 能力을 우리가 흡수하고, 특히 이 OR같은 經營의 能率을 올릴 수 있는 能力을 빨리 흡수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아직 赤字가 있는 國際收支를 적자가 없게끔하고 완전히 自力으로 우리 投資材源을 조달하는 狀態에 가야할 것입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貿易部門을 더욱 확대해서, 收入을 줄이는 縮小均衡이 아니고 輸出을 늘려 擴大均衡을 취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72개의 Simulation을 해 본 結果 1981년에는 可能함을 알았습니다. 不變價格으로 우리나라 輸出品 價格과 輸入品 價格이 똑같이 움직인다는 假定 下에서도 1981년에는 되고, 今年처럼 輸出價格이 輸入價格보다 빨리 올라서 交易조건이 대상이 되면 그보다 더 일찍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境遇 대개 우리나라의 의존도가 높아 진다는 것을 問題點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먼저 海外 依存度라는 表現이 正確한 것인가 다시 생각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狀態는 우리가 의존하는 것이 아니며, 또 國際貿易은 상호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때 오히려 海外關聯度라 함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海外關聯度가 무엇에 의해서 決定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낮게 한다는 目標을 세울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볼때, 먼저 이 海外關聯度라는 것은 輸出이나 輸入이 GNP에서 얼마의 비중을 차지하는가 혹은 貿易量이 얼마의 비중을 차지하는가로 表現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그 나라의 政策意志나 政策目標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나라의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므로 美國이나 中共, 소련같이 큰 나라는 그 안에서 나오는 資源과 市場의 크기를 가지고 거의 交易이 完成되기 때문에 海外輸出比率이 낮더라도 經濟目標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 반대 例로서 나라가 작은 스위스,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등의 나라들은 높은 生活水準을 유지하면서도 이 海

外關聯도가 높습니다. 또 美國의 境遇 어느 한주를 빼어 놓고 그 주가 다른 주와 交易하는 것을 전부 海外交易이라 表現한다면 예외없이 海外關聯도가 높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에서도 海外關聯도를 내릴 수는 없고, 반면 이것이 높아지는 데서 오는 危險을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問題가 남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經濟計劃의 하나의 제약조건이라고 우리가 받아 들여야 할 것은 바로 이 海外關聯도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危險은 세 가지 方法으로 막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海外關聯도가 높기 때문에 생기는 가장 큰 危險으로 國際貿易의 순환에 있어서의 기복이 있습니다. 지난 2년 사이 우리나라의 輸出成長率이 過去 40%대부터 약 2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經濟를 운영하는 變數중에 投資가 결국 우리 生活水準을 決定하고 고용수준을 決定하는 가장 決定的인 變數입니다. 이와 같이 輸出成長率이 낮은 경우 投資를 줄이면 輸入이 많이 안 늘어나 낮은 水準에서 均衡을 취할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으로 지난 2년 동안 自由中國에서 취한 安定第一主義의 經濟 政策의 예를 들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아직 生活水準이 낮으므로 투자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必要하다는 政策을 취했기 때문에 국제 수지의 적자는 일년에 20억 \$ 정도가 됐습니다. 1972년, 1973년의 경상적자가 3\$억이었던 것이 20억 \$로 확대되는 것을 감수하고 投資가 호경기에 到達했을때의 投資率을 유지하는 政策을 썼습니다. 석유과동에서 오는 우리나라의 실질소득 감소를 방지하는 1.14政策의 租稅減免政策이 그것이고 1974년 12월 10일에 취한 換率調節과 때를 같이하여 1975년 上半期에 住宅投資를 그 전년에 비해서 거의 배로 늘리고 그 하반기에 集中的으로 지출되는, 재정 투자의 季節的인 pattern을 상반기에 集中이 되도록 바꿨습니다. 그래서 國際的인 貿易環境 속에서 방입하면 우리 投資가 대폭 줄어들 시기에 오히려 늘었던 것입니다. 또 1974년, 1975년 두해 동안에 固定資本 形成이 GNP에서 차지하는 比率은 25% 水準內外에서 安定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할수 있는 可能性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國際收支에 적자를 낼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지니고 있던 外貨 保有庫를 모두 쓰든가, 그렇지 않으면 국제 금융 시장에서 돈을 빌려야 합니다. 우리는 外貨 保有庫를 거의 쓸수 있는 限度까지 모두 썼고, 또 해외 금융시장에서 過去에 빌린 水準의 두배 이

상에 해당하는 것을 빌렸읍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도 可能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外貨 保有庫를 더 많이 늘리고 국제금융 시장에서의 한국의 Credit worth, 즉 돈을 빌려 줄 價置를 더 높여야 합니다. 이것은 결국 韓國에서 추진하는 project의 利潤率이 상당히 높아야 한다는 것으로 귀착 됩니다. 이런體制를 유지하면 貿易의 기복에서 오는 危險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方法으로 식량 자급율을 올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產業關聯分析이나 project별 수익율의 分析을 볼 때 農業에 대한 投資에 있어서 기술혁신에서 오는 生産增加 이외에 水利施設이나 耕地擴張 같은 것을 추진할 때는 收益率이 대폭 떨어집니다. 그 예로 現在 우리의 技術革新에 의한 生産增加가 일년에 약 4.5% 되고 있는데 지난 15년간을 보면 약 4% 입니다.

또 이런 方法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合理的이라고 simulation에 의해서도 나옵니다. 이런 境遇 우리의 所得은 1인당 적어도 7%이상 늘고, 經濟全體의 所得은 약 9% 이상 늘고, 음식품이나 農產品에 대한 수요 彈力性은 낮읍니다만 4%이상 늘게 됩니다. 우리나라 국내 공급력은 쌀에 集中해야 자급 자족이 이루어지지 農產物 全體에 대한 自給을 유지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收益率을 내리고 利潤率을 내리는 政策이 됩니다. 이 경우 흉작일 때는 어떻게 식량을 확보하느냐 하는 問題가 생깁니다. 만약 國際 市場의 가격이 安定되어 있을 때라면 外換 保有庫를 많이 갖는 것으로 充分합니다. 그러나 지난 1973년에 겪었던 식량 과동 같은 때는 外換 保有庫를 갖는 것으로는 不充分하고 식량의 在庫가 必要합니다. 在庫를 갖기 위해서는 倉庫에 投資를 해야 하고 在庫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海外에서 기체를 해서라도 식량을 비축하는 그 이자 부담이 따릅니다. 즉 經濟全體를 하나의 會社로 볼 때 在庫를 많이 갖는 데서 오는 正常的인 代價를 치루는 셈입니다. 셋째로는 우리 나라의 輸出 商品과 輸出對象 地域을 다변화하여 貿易의 기복 자체를 줄이는 方法입니다. 이 方法에 있어서 지난 2년 동안 큰 成果를 얻었습니다. 實際로 中東 市場을 통해, 작년에 거의 모든 先進國의 輸出量이 10%나 줄은 반면 우리의 輸出量은 10%나 늘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中東이라는 새로운 市場을 개척할 수 있는 經營 能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우리의 經濟計劃은 구상에서도 OR精神과 그 接近 方法을 活用했다는데 있어서 認定을 받을 뿐더러 formal model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실천

할 能力이 있다는 점을 다른 後進國 혹은 개발 도 상국과의 差異點이라고 評價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아시아 개발 은행에서 우리나라의 中小企業 銀行의 第1次 中小企業 銀行借款의 事後評價차, 후진국 경제 계획이나 project심사 같은 technical한 問題의 권 위자인 Oxford大學의 Ian M. D. Little라는 교수를 파견했습니다. 그 교수는 우리나라를 代表하는 큰 기관이나 큰 企業에 간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약한 中小 企業體 중에서 약 30여 企業을 선택해서 精密 檢査를 했고, 먼저 아시아 개발은행에 낸 報告書의 마지막 結論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後進國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안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또 그 예로 다른 後進國에 가면 外貨配定이 안 되기 때문에 原料를 살 수 없고, 그러므로 가동율이 50% 정도인데 혹은 電力이 공급이 안 되서 可動率在 낮다든가, 生産을 해도 輸送이 안 되서 可動率在 낮다든가, 資金이 응통되지 않기 때문에 可動率在 낮은게 대개의 境遇인데 우리나라에는 가장 약한 企業에서도 이런 境遇가 없었으며, 세계불황이 1930년 이래 最惡의 時期에 다달았는데 우리나라에는 하루 10시간 조업하는 회사가 한 企業體, 12시간 조업하는 會社가 두 企業體, 그 외는 모두 그보다 더 오래 조업을 하더라는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또 이런 狀態가 된 것이 15년간의 經濟開發計劃의 成果임을 밝히며 경제정책이나 企業의 운영방식이 우월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1950년대와 1960년대를 國內에서 차이 지은 것은 政府 政策이 달라졌다는 면에서 찾아야 하고 다른 後進國과 韓國이 다른것은 그에 더해 우리나라의 企業인들이 역시 optimization bottleneck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또 bottleneck을 제거하는 政府의 政策과 그런 환경에서 100% 活用해서 최고의 利潤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찾고, 그렇기 위해서 모든 生産要素를 organize하고, 그것을 marketing한 結果 국제 시장에서 이길 수 있었고, 우리나라의 수출 확대를 가져 오고, 전 고용의 $\frac{1}{3}$ 을 차지하게 되고, 또 經濟成長에 있어서의 잠재력은 成長率 7~8% 정도라는 것이 2次 5個年計劃때의 判斷이었으나만 그 잠재력으로 수출확대를 할 경우 1981년에는 약 130억 \$을 輸出할 것이고, 그러므로 130억 \$ 수준에서 輸出과 輸入이 1981년에 均衡되는 Simulation result를 2次 計劃分析의 제일 첫장에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잠재력이고 그 이상을 達成하게 한 것은 우리나라 企業인들이 世界 市場에서 성공한 것이며 지난 15년간 우리나라의 實際 經濟成長率은 10%,

석유 파동 이후를 포함해서 지난 5년간은 11%의 成長率을 達成했다는 것은 곧 수출확대에 성공한 것이라 評價했습니다. 또 企業의 經營에서 constraint를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價格 構造를 국제 가격이 그대로 국내에 반영 되도록 관세율을 均一化 하고, 간접세가 모두 부가가치세로 統一化된 속에서 經營을 할 수 있도록 된다면 금년 같은 經濟 成長의 速度를 지속할 수 있다고 評價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경제성장의 두번째 目標인 能率 向上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의 접근 방법에 대해 일종의 檢證을 한 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OR을 生活化하고 전 企業이 一般化하고 우리나라의 大學을 나온 사람은 누구나 O R을 알고 또 經營을 알고, 그래서 어디에 일을 하든지 能率向上과 어떤 제약 아래에서 어떤 目標를 극대화하는 그런 接近方法이 日常生活에 완전히 스며들어야겠다는 것이 우리 能率향상에 가장 決定的인 目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전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하든지간에 經濟學 혹은 OR, IE 등의 接近方法을 가르치는 과목을 副專功으로 하도록 우리나라의 전공제를 개방해 주면 어떻겠느냐, 또 대학 정원을 대폭 늘려야 하는 상황 아래서 可能하면 management science系統으로 늘려 줄 것을 문교부에 요청 했습니다. 이런 때 學會 발족은 극히 희망적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教育 問題가 그렇게 된 후, 教育을 받은 사람들이 항상 企業의 運營에서 실천할 수 있어야 하며 실천할 때는 그것이 우리나라 전 國家의 利益, 社會 利益, 즉 국민 전체의 生活水準을 質的, 量的으로 向上시키는 경제계획 目標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問題가 남아 있습니다. 그 하나로는, In-put data중에서도 企業經營에 가장 決定的 變數인 價格, 또 價格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변수인 우리나라 수출 부문에서 결정되는 換率, 또 모든 수입품의 가격 비율을 결정하는 關稅와 간접세에 관한 것이며, 生産 要素중에 빠지는 곳 없이 들어 가는 전력, 철도 요금 등의 公共 料金에 관한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노임, 사람의 Service에 대한 노임, 그리고 資本全體를 사용하는 데 대한 Service가격인 利子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賃金, 金利, 換率, 公共料金, 그리고 關稅, 間接稅 등이 企業家들에게 완전히 中立化 되어, 이런 것이 없는 것 같이 企業가들이 活動할 수 있는 狀態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없는 것 같이 만들고도 稅入이 확보 되려면 똑같은 율이 適

用되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부가 가치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율이 적용되는 간접세로 그 租稅가 단일화 되는 것이 長期的으로는 결정적으로 必要합니다. 그러나 直接稅까지 포함하는 間接稅는 너무 급격한 개혁이기 때문에 곤란하므로, 우선 간접세만이라도 통일해서 稅率이 150%부터 1%에 이르는 多樣한 것을 하나로 대체 한다는 것이 약 5년동안 우리나라가 추진해 온 附加價值稅로 間接稅를 單一化 한다는 稅制 改革이, 또 관세를 단일화하는 것은 앞으로 5년동안 매년 接近해 나간다는 것으로 올해 國會에 상정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모든 나라에서 이렇게 하고 싶어도 實踐能力이 없어서 못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도 世界 銀行의 경제사절단이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自由中國에서는 이 부가가치세로 單一化 하려는 計劃이 우리보다 일년 전부터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유중국에서는 아직도 준비 단계에 있고, 반면 이런 合理化를 위한 作業이 경제발전 단계에서는 더욱 빨리추진되는 우리나라는 이미 完成되어 國會에 상정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經營能率을 향상시키는 OR의 活用은 상당히 희망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위의 모든 價格이 사회적인 費用에 거의 접근해야겠다는 觀點에서 電力에 관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産業用 電力 料금이 大수용가 block에서는 전력을 生産하는 데 들어가는 石油값도 받지 못하고 게다가 그 料金を 할인한 제도가 있었습니다만 지난 2년동안 부가 가치세나 關稅 單一化를 추진하는 형식으로 거의 일소하고 지금은 국제협약으로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알루미늄 會社에 대한 50% 할인이 남아 있는데, 만약 이런 경우의 會社가 많이 남아 있는 境遇를 생각해 보면, 기업체에게는 그런 價格體制 속에서 optimization을 하면 電力을 많이 쓸수록 그 利潤이 올라갈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企業體에게는 利潤이 커지나 우리나라에는 가장 不利한 産業構造가 나올 것입니다. 전력을 많이 썼다는 것은 石油와 發電 施設 全部를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境遇, 그런 형태를 통해 國營 企業의 손실을 가져 오게 되고, 결국 國民이 더 많은 稅金을 부담하게 되고, 우리나라에 가장 불리한 産業 構造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대기업체가 적고 輸出商品도 적은 種類 뿐이라면 정부가 단속을 해서 막을 수가 있겠으나 그렇지 않고 또 그런 必要도 없는 것입니다. 즉 企業體가 민간 주도형이고 optimization을 sharp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團束을 할 필요가 없는 價格體

制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資本이 풍부해지고, 金利가 내려가게 되고, 勞賃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段階에 앞으로 15년간을 예측해 보면 1990년까지 매년 50만 명 이상의 職場을 구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즉 앞으로 5년간만 해도 이백오십만명이 새로운 職場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더라도 지금부터는 産業構造, 雇傭構造, 商品構造의 변형이 지난 15년 보다도 더 급격히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럴수록 우리 經濟全體가 optimization을 sharp하게 해야 한다는 必要性이 나옵니다만 이 일을 中央에서 모두 한다는 것은 實際로 不可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market system, 資本主義 體制, 개개인이 모두 全體에서 optimization하는 것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언급한 價格의 三大 構造 외에 長期 政策과 短期 政策이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즉 우리 企業인들이 약 3년 내지 5년만 내다 보고 計劃을 해도 그것이 15年計劃을 하는 것과 一致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經濟計劃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지금 1년 정기예금하면 16.2%를 利子로 받는데 소비자 물가가 12% 오르면 實質 金利는 4.2%가 되고 이것은 우리나라 같이 資本이 不足한 나라의 資本의 價値를 表示 못합니다. 그러므로 물가를 安定시켜서 實質金利가 8~10%로 유지되면, 企業者가 이런 金利와 勞賃의 比率에서 결정하는 投資政策은 결국 15년을 내다보고, 雇傭 需要가 많음을 깨닫고, 정부가 말을 안해도 자연히 노동 집약적인 投資를 더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現在의 理想은 정부는 가격체제를 잘 만들고, 企業體는 그 속에서 하나 하나의 project를 잘 evaluate하여 國家全體 經濟의 成長을 이룩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난 2년 동안 GNP의 成長率을 8.5%로 유지하고 천만 명 이상의 人口를 가진 나라로서 失業者가 50만명 이상 늘지않은 나라는 우리나라 뿐입니다. 이는 우리나라는 國家全體가 하나의 optimization아래 움직였다는 것과 연결되고, 전 世界 經濟系投資가 大슬럼프 속에서 우리나라는 그 이전 5년보다도 더 높은 水準의 投資를 유지했다는 것과 連結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經濟計劃은 OR이라 表現을 하지 않을 뿐이지 실제로는 OR적인 接近方法을 취하며, 우리나라 전체가 하나의 optimization unit가 될 수 있는 環境을 만들고, 반면 initiative, 창의력 등이 最大化 되도록 모든 것을市

場 經濟와 企業體의 창의력에 맡기며 정부의 결정은 그 必要性 自體를 最小化 하는것이 곧 能率의 極大化인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 生活 水準의 향상 속도를 最大化하는 것이고, 雇傭 需要를 最大化하는 것이며, 곧 새로이 經濟活動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최대로 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成長의 限階라는 問題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成長率을 낮추는 境遇를 살펴보면, 이미 職場을 찾은 사람, 또 시장의 경쟁에서 이긴 强者에게는 상태가 악화되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아

직도 職場을 찾아야 할 젊은이들이 職場을 못찾게 되고, 또 市場 經濟의 경쟁에서 지는 사람은 經濟 活動에 참여해서 所得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는 成長의 速度를 늦추는 것이 곧 不平等을 심화시키는 結果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결국 能率 향상과 生活水準의 향상, 경제성장, 그리고 衡平을 위시한 社會開發은 우리나라에서는 하나의 process이고, 또 목표세계 자체가 하나의 目標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는 것이 또한 4次計劃의 이념이라 할 수 있겠읍니다.